■ 48년만에 치매환자로 찾아 온 노모 봉양 정정님씨

"어린 날 버린 어머니 원망 했지만 병든 어머니 저버릴 수는 없었죠"

"어머니는 날 버렸지만, 난 어머니를 결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린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채 48년 만에 딸 곁으로 돌아왔다. 팔순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6년째 보살피고 있는 정정님(여·61·광주시 동구 금동)씨. 겉보기에는 병든 어머니(81)를 극진하게 모시는 효녀처럼 보이지만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지난 2001년, 어머니가 월세로 살던 집 주인이 전화를 걸어 "당신의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정씨는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고 며칠 밤을 번민했다. 남몰래 묻혀둔 가슴 저린 상처 때문이었다.

7살때 헤어져 친척집 떠돌이 생활

어머니 생각에 독거노인 봉사 앞장

아버지가 숨진 뒤 고향인 영광 불갑면에서 정씨를 돌보던 어머니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재혼을 했다. 정씨가 일곱 살 때였다. 정씨는 큰아버지 집 등 친척집을 떠돌아야 했고 초등학교 3학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열여섯 살 때 광주 '전남방직'에 취직한 뒤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아픈 기억을 잊는 듯했지만 어머니는 또 정씨의 발목을 잡았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집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것이다. 정씨는 10년간 모은 70만원(당시 쌀 한 가마니 1만원)을 모두 내줬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 혼수를 마련한 정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목돈을 줬지만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재혼을 한 남편이 숨진 뒤 시댁 식구들과 새 남편 사이의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 않자 광주에서 30여년 간 홀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다. 정씨가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의 월세방 문을 열었을 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이 핀 낡은 벽지에 적혀있던 '딸 정정님 011-655-XXXX'이라는 글귀. 정씨는 순간 "그동안의 섭섭함은 눈 녹듯 없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며 "(어머니가) 죽으면 이웃들이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놓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정씨의 집으로 옮겨왔다. 극진한 딸의 보살핌으로 이젠 얼굴에 살도 올랐고, 휠체어를 타고 나들이를 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정씨는 그동안 쓸쓸하게 지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의 몸을 씻겨주는 등 사회 봉사에 나선다. 일주일에 세 번 계림동·산수동 일대의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하고, 집 주변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48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다시 모시고 사는 정정님(61)씨. 거동을 못했던 어머니는 산책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모녀는 진정으로 '화해'를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치매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어머니는 잠깐씩 과거를 떠올린다. "정님아, 미안하다, 널 버려서 미안하다"며, 엄마 없이 살아야 했던 딸의 설움을 다독여주고 있다.

정씨는 "매일 내게 사과 하는 어머니를 보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평생 쌓인 한을 어머니가 풀어주기 위해 날 데리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초등학교 직원 공금 1억5,000만원 유용

강진경찰 수사 착수

강진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1억5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과정서 밝혀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진군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가 공금 1억5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학생들이 납입한 급식비 등 공금 1억5천만원을 유용한 뒤 다시 채워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강진경찰에 고발하고, 해당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노래방 강도에 왠 절도혐의?

DNA 분석 '불일치'

경찰 법적용 '곤혹'

광주 노래방 연쇄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이 내심 곤혹스런 표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은 7일 노래방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해 온 서모(27·광주시 서구)씨를 쌍촌동 한 모텔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하지만 강도강간 등 전과 8범인 서씨에게 적용한 법규는 22회에 걸친 절도 및 장물알선(800만원 상당) 혐의뿐이다.

서씨는 "노래방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의 타액을 채취, 국과수에 DNA 분석을 요청했다.

문제는 1차 DNA 분석처럼 '불일치' 판정이 나올 경우 강도 혐의를 추가적용하지 못한다는 점. 경찰은 앞서 서씨의 집을 찾아가 운동화·담배꽁초에서 DNA를 간접채취, 북구 운암동 M노래방과 광산구 월곡동 D노래방 강도 사건에서 나온 것과 비교분석했으나 두 차례 '불일치' 판정을 받았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서씨가 귀금속 등을 전당포에 팔고 다닌데다 노래방 업주들에게 사진을 확인한 결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진술을 받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노래방 강도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구속 후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주 영산포 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

경찰, 수사 착수

오는 11일로 예정된 영산포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나주경찰은 신모(여·59)씨가 영산포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Y후보를 돕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이 나주시 선관위로부터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나주시 삼영동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5개와 5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조합원 임모(58)씨에게 전달하다 시 선관위 측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와 경찰은 신씨의 차 속에 있던 핸드백에서 ▲5만원이 든 현금 봉투 5개 ▲특정단체 회원 명단 ▲영산포농협 조합원 명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핸드폰 통화기록·현금출처·봉투 지문 등을 조사, Y후보가 신씨의 금품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70대 노인 치고 뺑소니

북부경찰, 2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7일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본보 7일자 7면〉 김모(25·광주시 동구 용산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혐의(도주차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0시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남대사거리 앞에서 카니발 밴을 몰고가던 중 길을 건너던 김모(여·75·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를 들이받아 숨지게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다른 차량이 사고를 냈다"며 거짓말을 한 뒤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9 최초 신고자를 중심으로 김씨를 찾아낸 뒤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

생활지도사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10대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 강진 모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사 A(45)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0월21일 3급 정신지체장애인 B(18)양을 강진군 한 폐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협회 탈퇴 앙심 건설장비 12대 파손

○…협회를 탈퇴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장비를 마구 부순 40대 건설기계협회 회원이 경찰에 검거.

○…여수경찰은 7일 도로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12대를 파손한 박모(43)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밤 9시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 내 도로에 주차돼 있던 김모(37)씨의 덤프트럭 등 덤프트럭 9대와 굴삭기 3대의 유리창과 계기판 등을 파손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것.

○…'여수건설기계협회' 회원인 박씨는 경찰에서 "덤프트럭 업주들이 협회를 탈퇴한 뒤에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조선대학교 MCB사업단
현장실습[인턴십] 산학협력기업 모집 공고
中國대륙을 향한 貴社의 힘찬 전진!!
조선대학교 중국비즈니스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함께 하십시오.

중화경제권 부상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제화 역량과 특화된 경쟁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하에 전국 각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지원사업단으로 선정된 우리 MCB(Multi-Talented China Businessman)사업단은 지역경제의 최대 거점으로 부상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비즈니스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출범을 계기로 최첨단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폭넓은 장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시키고 졸업생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학점교류프로그램 및 국내외 인턴십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MCB사업단에서는 중국비즈니스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국 상해사범대학과 상해재경대학 등 9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연수(4주) 226명, 학점교류(4개월) 86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또한 국내 및 중국 30여개 기업업체와 산학협정과 인턴십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121명이 인턴십(4개월)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포부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의 요람인 조선대학교 MCB사업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7. 5.
조선대학교 MCB사업단 단장 전의천

MCB사업이란?
(Multi-Talented China Businessman)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 하에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과, 무역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 비즈니스전문지식, 정보통신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참여 산학협력기업 특전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전문 교수진 컨설팅 지원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국 비즈니스 실무교육 지원
- 중문 무역통신문 작성 및 통역서비스 지원 알선
- 기업 행사 시 MCB사업단 시설 및 기자재 이용 편의제공
-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추진 지원
- 현장실습(인턴십) 교육과정 실습생 파견
  하반기(2007.09~12, 4개월), 상반기(2008.03~06, 4개월)

MCB 현장실습교육과정(인턴십)은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기업의 검증된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교육과정입니다.

산학협력기업 등록절차
1. 대상기업
 – 광주 · 전남 소재 기업 및 기관단체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년 5월 1일~5월 31일
 – E-mail 또는 우편접수
3. 문의처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MCB사업단
  TEL : 062-230-7283, FAX : 062-236-3285
  E-mail : mcb@chosun.ac.kr
  주소 : 501-759 광주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5층 MCB사업단
*신청서는 본 사업단 홈페이지 http://mcb.chosun.ac.kr에서 다운로드

주관 : 조선대학교 MCB사업단 http://mcb.Chosun.ac.kr/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 · 전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 전남지회, 전남지역경제인협회, 한국산학협동연구원